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에서 일괄신고하므로 신용카드매출에 대해 사업장별 구분이 안되어도 문제되지 아니함

Q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금년 1월 1일부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사업장에서의 매출발생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지원 프로그램에는 종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 종사업장으로매출을 발생할 수는 있으나, 신용카드매출 발생 시 카드사에서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을 구분 ·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종사업장의 매출인데도 불구하고 주사업장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무적인 문제점은 없는지요?

A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사업장별이 아닌 본점에서 전체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므로, 신용카드매출에 대해 사업장별로 구분되지 않아도 세무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 증권양도시 양수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임

Q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와 관련입니다.
- 주권발행 법인 : 국내 비상장 법인
- 양도자 : 비거주자(독일)
- 양수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독일소재 유한회사)
위 와같이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신고와관련으로 납세의무자 및 세율등 문의 드립니다.

A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양수인이 양도자에게 대금지급시 증권거래세(거래금액의 0.5%)를 차감 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보유비율이 4%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됨

Q 당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주식회사)으로 비상장 주식(금융회사:자산운용주식회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대표 또는 임원)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아래 문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1. 2020년 이후 주식을 전액 매각할 경우 양도세율은 %가 적용 되는지요? (시점별로 다른가요?)
2.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회사: 자산운용주식회사) 중소기업으로 포함되는지, 아니면 비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요?

A 1.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인지여부, 양도자가 대주주인지여부, 주식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4%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하는데, 양도자가 대주주의 경우 해당주식이 중소기업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표준 3억이하는 20%, 3억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중소기업 여부는 세법이 아니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인지의 여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지급후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한 경우 수정제출하여야 함

Q 2018년 귀속분 퇴직소득세를 2019년 1월에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에 2018년 퇴직소득분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고, 2020년에 위와 관련된 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위 건에 대해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A 2018년 귀속 퇴직소득을 2019년에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신고는 지급시점인 2019년에 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는 2018년귀속분으로 2019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여야 합니다.